

	진술서 (1회)
본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13 신림초등학교 2학년
	柳 時 敏 (1959. 3. 24)
1.	저는 말전에 미처 진술하지 못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불명확한 사항을 상세히, 잘못을 수정하고 명확하게 진술코자합니다.
1.	저는 3월 10일 경 오후 1시에 7동 102호 강의실에서 개최된 경제학과 총회에서 경제학과 과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총대위원 회의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1.	1980. 3. 15 경 오후 2시 쯤 사회대학생 회실에서 사회대대의원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안건은 이바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개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때 현 서울대 총학

	생활회장인 심재철이 찾아왔습니다. 총학생
	회장상 총학생회장은 각과대표 및 계열대표
	124명으로 구성되는 총대위원회에서 간접선거
	로 뽑게 되어있었고 임후보 요건으로 최소한
	1014 이상의 대의원 추천서를 임후보 마감
	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으므로 심재철의 사회대 대의원
	들의 추천을 받으며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찾아
	오 것이었으며 과장 추천할 수는 없는 일이
	어서 몇마디 질의응답을 해보았는데 그때
	심재철은 <u>씨름활동의 자유, 학내언론자유,</u>
	<u>집회자유</u> 등 "알아버린 권리의 회복"을 모
	토로 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저와
	심재철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후 3월초
	28일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급전
	수부, 음식, 숙박대접 등은 전혀 없었으며

선계유세할 때만 청중목이 섞여. 심재철
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재철은
3월 24일과 27일 양일간 오후 1시 아크로
동에서 연설하였는데 그의 모토는
교내의 언론 출판·집회 등의 자유회복과
유신자재청산, 대학문화혁신의 3가지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1. 3월 18일경 사회대 대의원 회의를 하는
도중 사회학과 대의원인 유 승호, 정치학
과 대의원 김 종영, 외교학과 대의원 전
상훈 등이 "사회대는 대의원 수도 11명
으로 많고 하니, 총대의원회의장을 우리
사회대에서 배출해보자. 사회대에서는
항상 경제학자가 제일 규모도 크고 리더격
이니 유 시현을 후보로 내어보자."고
주장하였고 총학생회차장으로 볼 때 총

	대의원회의는 그리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
	고 학기초와 학기말 그리고 선거할 때
	열리므로 그리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
	지도 안고 대학생활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저도 승낙하였습니다.
1.	① 3월 28일 13:00 부터 <u>학생회관 2층</u>
	<u>라운지에서</u> 열린 제1회 총대의원회의
	에서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기 직전에
	총대의원회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대
	의원회의장은 총학생회장과는 달리 심부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
	이 너무 독단적이거나 부정이 있을 때 총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견제하고
	해판하며 <u>학기초와 말에 예산 및 결산</u>
	<u>심의·승인을 위하여</u> 총대의원회의를 주재
	하는 것이 그 주임무이므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선거유세나 해동면설치없이
	그자리에서 출마하며 약 20분만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선} 공대 공
	공학과 대의원인 <u>이 원대</u> <u>군</u> 과 <u>경향한</u>
	끝에 <u>80:31</u> 로 당선이 확정되었고
	약 5년간의 소년발표에서 저는 "학생
	회는 순수한 학생자치기구이며 우리는
	단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인
	세력으로부터 학회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수호하여야 한다."는 의지의 여설을 한
	바 있습니다.
	② 같은 날 동의장선출이 끝나고 나서 총학
	생회장선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공대의 <u>양 지형</u> 후보가 사회화였으므로
	총인원 24명 중 114명이 투표한
	이 선거에서 <u>심재철</u> (사대 영어과 4)

이 김기달 (치대 보라나) 후보를 92.2
로 누르고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
다.

③ 이날 선거가 끝난후 인문대 대의원
회의에서 채택된 병영집체훈련 거부
결의문이 총대의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저는 그것을 다음번 총대
의원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
여 그날 토론이 불미지는 않았습시다.

인문대 결의문의 내용은 「병영집체훈련제
도는 구제제의 산물이며 군사훈련은 교
련교육만으로 충분하므로 항전병영에서의
청결을 위하여 이 지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것 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4월 2일경 인문대 2시쯤 대학본부 학생

	처장실에서 학생처장 이 수성 교수님을
	만났을때 총학생회칙 중 제9조 6호
	"학칙개정 발의 및 사전동의권" 제9조 2호
	"학교관계당국자의 출석요구" 제12조 9호
	중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등 3구절이
	명백히 교칙과 학사행정칙을 침해한
	다는 이야기를 이 수성 교수가 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총대의원회의에서
	이 대목을 기정함인데 학처장회의에서
	총학생회칙을 승인하여 달라고 하자 이수
	성 교수님은 "개정후면은 승인이 가능하단"
	고 하였읍니다.
1.	4월 9일 19:00 ~ 22:00 신조로다리부근
	중독집인 "청원"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천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의 총학생회장단이 모여 회의

등 하였는데 이 회의는 서강대 총학
 생회에서 주최 및 주도하였고 서강대 총
 학생회장 박성영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 회의에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장 심
 재철과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내용
 은 성조관대학교의 병영집체훈련거부
상황보고와 훈련조치강구, 경희대·세종대 등
 사립대학의 재단부조리문제로 인한 학생사태
 에 대한 이야기 등 2가지에 대해 토론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성조관대학교 총
 학생회장이 재학교가 동조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이 문제는 상대만
 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동과제
 이므로 상대가 심자가를 지 씬 셈이니 도외관
 라."고 하여 상대의 병영집체훈련거부의
 서울대·연세·서강대기 총학생회장들이

공동으로 서명하였습니다.

1. 4월 10일 오후 3시 8동 103호 대경

강의실에서 개최되어 오후 8시 30분 경에

폐회한 제2차 임시총대의원회의에서

①. 4월 2일 학생처장 이수성교수가 교칙

침해를 주장한 제9조 6호 "회칙기정방의

및 사전동의권"을 "학생권익에 관한 학칙

개정 건의권"으로 수정하고 제9조 12호

"학교관계당국자와 충실하다"는 삭제하

였고 제 12조 9호 중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학생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때 참석대원은 78명

이었습니다.

② 동 회의에서 총학생회 각 부장 즉. 명예부

장 권영철 (공대 전산과 4), 사회부장

허남정 (인문대 철학과 3), 총무부장 이흥

화 (자연대 제동라 3) . 체육부장 박
명기 (사대 체육라 3) , 학생활동지원장
이 홍동 (사회대 정치학과 4) 을 <u>인준하</u>
<u>였으며</u> 4월경 명기 넘제 및 4월 가
예사를 심의 승인하였음이다.
③. 3월 28일 제 1차 총대의원회의 당시
인준대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1. 경영
정책추진 거부 결의안을 62명의 대의원
우인이 있는 가운데 <u>만장일치</u> 로 가결한
총대의원회의장은 제가 <u>결의부작성 및</u>
<u>인준을</u> <u>유임</u> 받았음이다.
④ 제는 같은날 총대의원 회의가 끝난
후 총대의원회 사무실에서 약 10시까지
결의부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후 4월 11일 10:00경 사범대학 지학
과 대의원인 황위기에게 8점지 사형

치에 깨끗이 씻게한후 「4월정양
 기념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인재를 위해
 마침 학교에 와있던 대한인대소 임
 자에게 부탁하여 2000 마를 제작
 하였으며 대의원들을 통하여 주로 관악
 캠퍼스에 있는 1학년들에게 배포하였
 습니다. 이때 비용은 3만원이었으며
 1학기 정대의원회 예산 70만원중 일부
 항목에서 인출하여 조로부터 지출받아 충당
 하였습니다. 대한인대소의 전화번호나
 출입임자이름은 지로서는 알지 못하며
 주로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에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4월11일에는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① 관악캠퍼스에서 10:00 ~ 12:00 사이
 총학생회 발족기념식, 동교동적 환영식 및

"고 김상진 열사" 추모식을 겸한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회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식의 진행이 늦어지자
 수원농대 캠퍼스에서 12:30경부터
 열린 예정이던 "고 김상진 열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심재철
 및 부회장 김학진은 식이 끝나기 15
 분 전인 11:55경 수원으로 버지 출발
 하였고 저는 끝까지 사회를 보았는데
 12:10경 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
 들에게 "수원으로 갈 사람은 지금 북쪽
 있는 상봉사에 탑승하라"고 지시했
 다. 이때 우측 복학생 한 명이 와서
 모든 학생이 다 수원으로 가기는 버스
 15대 정도 부족하니 남학생들끼리 서로
 사동대회를 하게 라이크를 넘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총학생회
	장도 없고 위원회 계획으로 있는 도서관
	나오는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청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불학생이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를
	비난하기 때문에 저도 "무지 잘못하게
	있느냐?"면서 약 5분간 다투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불학생이 바로 학교
	총무인 "민청장관" 회장이고 김대중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 해찬(사회학
	과)이었습니다.
	② 마이크나 스피커 설치는 학생회장부들이
	보부나 총무에게 부탁하면 언제든지
	설치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라는 학생
	처장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③	저는 14:00경 1층버스로 수원농대로 가서 18:00까지 "한겨레신문 열사 장테 식"과 발인을 보고서 수원농대에서 총 학생회장 심재철이 자기는 제주이므로 일찍 나갈수 없으니 19:00까지 중국집 "청원"에서 있는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가보라고 하였으므로 18:00경 학교를 나왔 습니다.
④	19:00 ~ 22:00 중국집 "청원"에서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신여 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학교의 총학생 회장단이 모여 회의를 열고 성균관대학교 의 경영영향치호권 거부 농성 상황을 보고 한후 연세. 서강대학 경영재단문제 이 대해 ^{경영재단을 위한} 경영활동 등을 하자는 제의가 나왔으며 이것은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동위원강인 이홍도(형치라 4)이 제의한
	것입니다. 또한 성조관대학교 총학생회
	장은 라대학교가 같이 보내시기. 농성을
	시작하여 병정거부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
	와 변화를 맞추어달라고 촉구하였으나
	다른 대학은 아직 날짜가 많음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
	습니다. 이때 서울대에서는 저와
	총학생회장 심재철. 학생활동위원장 이
	홍도가 참석하였고 심재철은 21:00경
	에 도착하였으며 사회는 누가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모인것은 4월
	9일 폐회시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
	니다.
1.	4.12. 19:00 ~ 22:00 중구집 "청원"에서
	4월 11일의 회의 끝에 한 약속에 따라

(수사지도과)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숙련대·
	동국대·이대·숙대·성신여대·등의 총
	학생회장단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숙련대 총학생회장 윤여연이 사취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참석치 않고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
	활동위원장 이홍동만 참석하였으므로
	저는 회의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람대학의 폭력재단의 반성을 촉구하는
	9개대학 광명성명서가 채택되었으리라
	고난은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1. ④. 16. 19:00 ~ 22:00 중구집 청원에서
	서울대·서강대·연대·성대·건대·이대·
	숙대·서울여대등의 총학생회장단이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4.14
 최규하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정부가 학위사
 를 제정연장의 이유로 등기 대해 222
 신원환 국무총리가 또 유사한 발언을 하고
 정부가 개헌주도를 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시국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낸
 필요가 있음을 명성한후 성명서 작성을
 서울대에서 임박받은후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에서 모여 초안을
 검토한후 오후 5시에 발표하기로 하였고
 유이다. 서울대에서는 심재철과 제가 참석했

④ 회의를 끝난후 저는 중앙일보장
 심재철과 함께 유동아파트의 201
 누님댁으로 가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
 였는데 심재철이 "비상제엄 해제"
 "정부주도 개헌 반대", "언론자유 보장" 등의

	항목을 생각내어 제 의견을 물었고
	제가 거기에 동의하자 그중 "정복개혁
	반대" 문제는 제가 초안하 ^기 에 대해 심게 임해
	지" 문제는 심재철이 초안하였 ^{으며} "언론
	자유보장"은 심재철이 보다가 저에게
	넘긴것을 제가 마무리 하였 ^{습니다} .
	다음날 아침 그것을 8점시에 베껴쓰
	지는 연태로 가는 길에 ^{14:00시경} 교문 앞 복사
	실에서 20부를 복사하였 ^{습니다} .
1.	4월 7일 15:00 경 연세대학교 총학생
	회장실에서 서울대. 연대. 근대. 성대. 서강
	대. 건대. 숭실대. 동국대. 이대. 숙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등이 총학생회장단
	으로 ^{제가 보사해} 초안을 검토한 후 ^{자주 정중하며} 다시 연대학생회
	에서 약 30부를 지 ^부 로 보내 ^어 기자
	들 약 10명 (동아. 조선. 한겨레. 문화일보.

등기 기자)라 학생회장들에게 배포하
였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광호
가 성명서를 남겼었다. 성명서의
제목은 "연세대에 대한 공동성명서"였고
내용은 비상제엄에 대하여, 헌법개정
에 대하여, 언론자유에 대하여 등이었
으며 바로 비상제엄 해제, 정부주도개헌
1호선, 언론자유보장등을 주장하는 것이었

었다. 이 성명서는 일반학생에게는 배포하지 않았

1. 4월 10일에는 4.19 20주년 행사가

① 10:00 ~ 11:00 유천관례로 학생
회관 2층 라오지에서 열렸으며 약 100
여명의 학생들과 홍장, 부홍장, 학처장
약 15분이 참석하였고 홍장 교수의
교수는 기념사에서 「이념을 뚜렷하게
4.19 행사를 학생들과 함께 개최할수

있어서 기법과, 그 하였고 학생처
장 이 우성교수는 4.19 당시의 60.4.25
교수단의 사후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이것은 총학생회장 심재철군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총학
생회장 심재철은 「4.19 지 20 선언이란
유언문을 자신이 작성, 집행문을 시키
고하여 기념식장의 기자들과 학생들에게
배부르도록 자신이 식장에서 낭독하였는
데. 그 내용은 「한국의 현대사는 4.19
정신과 그것을 죽이려는 자 사이의 투쟁
의 기록이며 지금도 반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반드시 민족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② 기념식이 끝난후 약 1000여명의 학생
들과 10명가 교수들은 (즉 부총장,

	학생회장, 교무처장, 학장등)은 스피커스
	와 전세버스(8대를 타고 4.19 모임을
	참석하였으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오후 2시 30분경 「4.19 제20선언」을
	문지기 방아래에서 다시 한번 낭독하
	였을 것이다.
1.	4월 23일 22:00시 경 봉천동 소재
	시도여관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
	총학생회 부회장 김학진 (조선문학 3)
	사범대학 학생회장 진영호 (교육학 3)
	자연대 " 배명주 (" 3)
	공과대 " 양점식 (" 3)
	의학대 " 김대중 (제약 3)
	사학대 " 유승호 (정치 3)
	등과 지가 각이 모여 평양집회
	총연계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므로 총학생회장
	심재천의 말에 따라 한쪽 구성에서
	하늘새, 봉페으로 "총학생회 학부교장까지."
	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초안하였습니
	다. 제가 이 유인물을 초안하는 동안 운영
	위원은 보정영직제 훈련기간인 5월 4일
	에서 5월 13일 사이에 학교에서 정상수업을
	해 주지 않더라로 학생들끼리 3·4학년의
	1학년 반으로 들어가 교양세미나를 한다
	거나 학생대표회를 단과대학별로 계획
	준비하기로 하여이를 보고 공대 학생회장
	양정삼군의 제의로 학교에 정상수업을
	요구하기로 하라. 또 대총대 학생회장
	김대중군의 제의로 학교에 개척임소통지서
	를 발송하지 말라요 요구하기로 하였습니
	다. 한편 총학생회장 심재천은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하다. 우리도 괜히 이문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부가 바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인물 초안을 동원, 24년,
	09:00 시경 총학생회장의 책상위에 놓아
	두었고 그것을 운영위원들이 약 25분
	을 인쇄하여 단과대학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가정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나. 25년 <u>학생처장실에서 총학생회장</u>
	<u>심재철과 학생처장</u> 이 수정 교수가 만나
	문제가 되고 있던 경영양심제후려개혁이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 때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학교에서 개별
	인사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겠다
	임소

	기간인 5.4~5.13. 여름동안 1학년이
	대해 정상수업을 실시하리운것을 요청하
	였는데 그 중 개별면담통지서를 학교측
	에서는 발송하지 않겠다는 <u>학답을 받</u>
	<u>아내였고</u> 정상수업관계는 <u>학답을 연지</u>
	못하고 있었우며다.
1.	4.28. 15:00~18:30. 풍로 원임라미서
	서울 시내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가
	열렸는데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참석하였고 본인은 참석치 않아 참석한
	학교나 주르한 사람들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려우나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5월 7
	일어가면 학원의 이슈를 교내문제에서
	제치직인 것으로 확산시키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우며다.

1. ~~4월 30일~~ 11:00경 저는 수원농대에서
 이종교수문제로 교내시위가 4월 29일부터
 일어난다. 주제가 30일에는 학교를 잠겨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곧 수원농대로 출발하였는데. 약 13시
 30분경 농대에 도착한 저는 오후에는
 위원회와 상황등을 파악해보고 나서 19:00시
 ~ 5월 1일 03:00시까지 연세 평교수협회
 와 학생회차 회담에 같이 참석하여
 사태를 파악한 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려면 이종교수로 지목된 농교들과
 농해교등 시교수가 물러나거나 학생들의
 농성을 끝내야 하는데 어느 한 쪽도
 양보할 것 같지가 않았었다.
 저는 농대학생회장 차진정성에게 "농성
 을 장기화시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31일

한쪽 5월 1일 11:30경 수원농대에
서 중방히었우이다.

1. ① ~~한쪽~~ 5월 1일 밤 14:00시 조금 지난부
럼 저는 관악기보러는데 다시 도착하였
는데 ~~부동~~ 아크로 폴리스 광장이 약 200
명이 모여있어 있었우이다. 저는 도착 즉시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사먹은후 농악사범회
장실로 올라가 부회장 김학진군으로부터
병영장제 응모여부를 놓고 (응시부터 운영기)
위원회 있다는 말과 아크로 폴리스기
보인 학생들이 농학생 약 30여명 뒤에 대부
분이 농학생들이 시중상회대회를 주관하는
일반 재학생들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후
사위를 보사같이 밤 유성 (자연대 마감을
학과)이며 그가 사회, 주최선참, 테코자
등을 담당하였우이다. 이일은 14:30시부터

16:00 사이	아르포폴리스와 교문사이의
진입로를 양분하면서	"제일해제" 등기구로
와 전등화, 신현화 등지를 요구하는	
교내시위를 벌였음이다. 지는 그것을	
구경하지 못했으므로 무가 무의 지사하는	
모르나 이날 봉학생총회에서 사국상토와	
교내시위가 다음날부터 자치분제를 들고 나온	
수 많은 학생은 교외로 부지를 만들어나갔	
고 그에 따라 학생회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음이다.	
② 이날 즉 5월 1일 18:00 이후	
유영우/원하가 영권 예정이었는데	
총학생회장 심재원 (사대 영과 4)	
부회장 김학진 (공대 조선공학 3)	
인부대 학생회장 노찬주 (동양사 3)	
사회대 유승호 (경제 13)	

경향대 학생회장	정 청삼 (경영3)
법대 ..	이 청우 (법3)
사범대 ..	진 영호 (교육3)
공대 ..	이 승점식 (3년)
약대 ..	김 대중 (3년)
자연대 ..	배 명주 (3년)
가정대 ..	김 정미 (외국3)
비대 ..	박 종철
총학생회장	이 재인 (교육3)
그리고 저 등이 있을 때 18:00시	
점심에 <u>연성만</u> (人文大), <u>심상완</u>	
(사회학과), <u>오세종</u> (천학과) 등 복학생	
6명 정도가 들어왔고 이때 심재	
철은 방을 맞은 뒤에 앉아 있다가	
별표 붙여진 기사잡지의 "어서 오쇼"라고	
인사를 하면서 보아 복학생과 심재	

침 사이에 미리 양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평북상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사죄를 보았으니 주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을 연성만(이로대)이
 있었^{심재철은}다^{다들} "평양집체
 호련을 거부한채 민족화투쟁을 벌이면
 우리 민족화투쟁에 대한 여론이나 국민
 등의 인식이 양화되므로 평양집체호련
 거부는 개꿀이 철회하라 5월 2일부터는
 내지기를 벌이면서^{내지기를 벌이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자"는 주장을
 하였는데 처음에 평양대 학생회장
 자천상, 사범대 학생회장 등 7인 영호
 등이 반대의 뜻을 보였으나 결국 설득당
 해^해 북학생들의 주장에 동의하였^다이다.
 이때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약 22:00
 경 이것을 먼저 신문기 발표할 것인가

방괴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다른사람들
 즉 운영위원의 타노 저나 복학생들을
 명방인 집행부원으로 피지시킴후 운영위원
 등까지 약 23:30 까지 의논한후
 발원하기로 결정한 5월 2일 12:00경
 한중보등 신문기자들에게 발원하였습니
 다. 또 동학새마을장심재현은 여러개의
 구호를 단과대학으로 배당하여 주었는데
 예컨대 「비상계급해제하라」는 사범대,
 「노동조합보장하라」는 경양대, 「정복기원
 주지하라」는 법대, 「유신장담무너가라」
 는 가정대이... 이런 식으로 각 단과대학
 별로 구호를 하나씩 나누고 각 사별로
 문내용은 자유롭게 피켓 하나씩을 준비하
 기를 하였다. 이 비등은 모두 학새미
 비 및 라디오로 전달하였다고 알고 있다.

유니다.

③ 운영위원회 이 결정은 4월 10일

총대위원회에서 가결한 병영집체훈련

개별적인다는 상충배치되는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의장인 저에게 총대위원회

의의 소장을 요구하였는데다. 총학생회차상

운영위원회가 소장을 요구하면 총대위원회

의장은 반드시 총대위원회를 소집하여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양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5월 2일 12:00

부터는 민주화대호회 11:30부터는

총대위원회가 각각 마르플리는 라장

및 학생회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

니다.

1 ① 5월 2일 10:00부터는 각 라방 반별로

라장회 반장회를 열어 병영집체훈련을

치 안 본 부 3064

880-514
815

(수사지도과)

	선동작업을 대위헌. 학생회 간부들이 1번이
	고난 12:00 인문대로쪽의 입장하기 시작
	하여 하얀 가운을 입은 60여명의
	남녀 의대생들이 마지막으로 「제문해제」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입장하고 난 아크로
	폴리스 약 1300명의 과장은 12:00의
	학생들로 막 차버리고 말았다. 이때
	같은 시간 저는 총대위헌회기를 열고
	있었으므로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총학
	사회회장 심 재천이 사회도 보면서 시국선언
	부로 낭독하였는데 구호를 선창하고 고대
	수화통로를 인수하는 언중화 대회를
	총지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낭독한 시국선언문은 총학사회장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 아니지도 알수 없
	나. 5월 6일자 대학신문이 전분이

치 안 본 부 3065

게개회였으며 내용은 역시 「한국의 민족
회를 위하여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야
하며 언론검열제 등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 것이었습니다.

② 저는 11:30부터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실에서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독선적인 ~~운영~~ 결정
을 지적한 것이요 이어서 ~~학생회~~를 의제로 운
영위원회의로 ~~개회~~ 임시총대회의
회의를 하다가 밤이 시끄러워 2층
대형강의실로 12:30경 옮겨 14:30
까지 회의를 한 결과 96명의 참석
자중 77명이 찬성으로 총대회의의가
4월 10일이 결의한 바 있는 비상검열제를
철폐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지적하였습
니다. 대부분의 대의자들은 운영위원회의
독선을 비판하면서도 총대회의가 2월

정사함을 복인하면 학생회가 두 쪽이
나다는 생각때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③ 이날 14:00시 ~ 17:00사이 3시간에
정체 교내 순화도로를 12,000명이 입학한
민주화대행진은 그 순서가 아크로폴리스 → 괴암로
→ 교문앞 → 기독교앞 → 교련장 → 4.19 탑 → 아크
로폴리스의 순서였고 연극반의 짐과 쉼터
리가 함치기 우리 각 단대별로 하나씩
15개의 플래카드와 각과마다 준비한 100
여개의 피켓을 앞세우고 그 앞뒤 행렬
의 길이는 거의 1.5km 정도에 달하였는데
각과대각 별로 4.19 탑에 묵념을
드리고 아크로폴리스로 집결하였었습니다.

④ 이때까지 지휘는 모두 총학생회장 및
과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맡았으며

	대행진이 끝났을 때 인원은 6000명
	정도였는데 19:00시경 이 6000명의
	학생이 다시 교문앞으로 집결하였고 이때
	부터 약 2:00시까지 「비상계요해제」
	「신원확실회」 「전주환회」 「언론자유보장」 등
	을 주제로한 자유상도가 있은후 약
	2:00경 학생활동위원회 (위원장: 이
	홍동, 정치4)에서 준비해온 2개의 광
	복각시에 신원확, 전주환의 이름을써서
	교문에 대단쪽 석유를 끼얹고 불을질러
	화염을 가졌음이다. 이 화염식구는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등이 지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음이다. 저를이때 사회를
	보았음이다.
⑤	청야농성을 하기위하여 다시 2:00시경
	아래동리스광장에 모였을 때 인원은 약
	3000명 정도였으며 식당에서 단대별로

차례차례 제법식사를 한 후 역시
안과대학병로 도서관 6개 방과 학생회
관을 이용하여 청아농성을 시작하였고
농성시 드론이 주체나 구호의 내용은 낯서워
때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⑥ 테보 17:00경 학생 600여명이 다시
아르포동리에서 집결하고 있을때 총학생
회장 심재현, 부회장 김학진, 그리고 저와
그외 2명 정도의 학생회간부들이 양의
모이었는데 이해찬, 심상헌 등 3~4
명의 불학생들이 공과 5~6장을 사왔고
그중 이해찬이 저에게 공과를 주었으므로
제가 4월 11일 일로 있고 해서 화해하느
라 먼저 인사를 차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서야 저는 바로 그가 이해찬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제가 "이전에 다들 일은 미안

하이다."고 사과하라 ~~그는~~ 이 해찬은 "일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수사가
많다고 걱정해주었습니다.

1. ① 5월 3일 9시에는 영시 전날과 동일한
구호를 외치며 교내 아크로 폴리스 광장 및
교문앞에서 시위. 연좌 하였으며 다음날
분류대에 입소할 1학년생들을 입소준비한
시간을 주위해 약 15:00 경에 박수를
치면서 교문밖으로 내보내 1학년 약 1천
여명은 2대 3가 하였음이다.

② 이날 13:00 경 아크로 폴리스에 약
4000 여명의 학생이 등집해 있을때
분리 5월 2일 오후 2시경 4동 대형강의
실에서 행위를 열고 학생들의 교내
시위 및 청야를 대리해 강은 과의
학생들에게 석이 약 500 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하여 즉 같이 행동하
	였음이다.
	③ 15:00시경 1학년을 내보내주 약 3000
	여명이 교복앞에 여좌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u>외도입경단속</u> , <u>언론자유보장</u> , 등을 요구
	하는 시국성로대회를 벌였으며 이때 사
	<u>법대학 학생회장</u> 이 <u>사회를 보아서</u> "비상
	계엄 해제하라." "정복개헌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18:30경, 교복앞
	성로대회를 마치고 다시 도서관과 학생
	회관에서 동일한 주제로 청야농성을 벌였는
	데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각 단과
	별 농성장에서 자기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을
	지휘하였고 이때 농성인원은 약 2000여
	명 되었으며 21:30분경 교병의 총장님이
	농성장을 둘러 보았다는 전화가 <u>특수학생처</u>

	장 이수성교수로부터 총학생회장으로 걸려 왔으
	므로 제가 안내하러 총장 교병익교수: 병철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과과대학 학장 등 약
	십여명이 동생장이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둘러보았으며 이때 총장님은 그냥 농산
	장에 들어가셨고. 그러면 학생들은 박수를
	치셨으며 총장님은 당제로 손을 잡게 들어
	보이는 정도였으므로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읍니다.
	④ 이날 밤. 총연극회 학생 약 10여명
	은 23:00시경 도서관과 학생회관에서
	동생학생들이 보는 앞에 공정등 사건을 풍자하
	연극을 하였습니다만 저는 2 학생들의
	이름은 알수 없고 각 씨름은 부계부
	소관이므로 부계부장 원영철 (공대 전산3)
	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① 5월 4일 9시 10:00시 봄터 교문앞에서는
	일학년 병영집체훈련 <u>화동식</u> 이 개최되었는
	데 여기에는 1학년생 약 2500 명과 일반
	학생 약 3000여명등 5000~6000 여명이
	응집하였음이다. 이때 사회를 볼 것은 인문
	대 학생회장 노창준(동양사3)이었고 그는
	<u>화동식</u> 이 시작하기 직전 "정의가" 등의 노래를
	선창하였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기도 하였음이다. 여기서 총학생회
	장 심재철은 "화동식"에서 "보다 큰 민족
	<u>화두쟁</u> 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일학년에게
	감사한다."고 했으며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는 이때 일학년들에게 "민족화를
	1차라는 열망은 학생·교수 모두가 똑같은
	것이다. 대학의 파국을 막아준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하였음이다.

② 13:00경 화상식이 끝나고 1학년들이
 계양산 바스가 교문을 나설때 양쪽에
 붙어선 3000여명의 학생들은 애국가를 불러
 주었으며 버스에 탄 1학년생들은 "청의가"
 등의 노래와 "비상계엄해제" 등 수호를
 외치며 교문을 떠났습니다.

③ 1학년들을 보내고 약 300여명의 학생들은
 다시 아크로폴리스에 집결하여 농성해제식을
 가진후 15:00경 농성을 해제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 농성해제식에서도 저는복
 이쉬어서 못하러 이문대학생회장 노창준이
 사회를 보았으며 애국가를 부른후 해산했
 는데 같은 시간에 교문앞에 있던 200여
 명의 전두환장도 청수하였습다.

④ 같은날 18:30경 총학생회장 심재성
 학생회장동 위원장 이흥동, 부회장 김학진

	무예부장 권형철과 제가 같이 봉선동
	의 한식집 (한식집이름 미상)에서 생선찌
	게와 우삼을 시켜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저는 이때 우박 파는
	하얏으로 나온 한잔 밖에 미치지 않았고
	총학생회장 심재철은 "그동안 모두들 수고했
	다."면서 격려해주고 식사대 약 1만여원
	도 자기가 지불하였는데 그 돈이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
1.	5월 2일 ~ 4일까지 농성기간중 특히 중요한
	것은 5월 1일밤 갑자기 병영집체훈련장소
	경계를 내린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훈련
	비난을 받고 중지해 불려 있던 5월 2일
	12:00 시부터 교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일만
	이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민주화대행회
	중 김부권(복학생, 정치학과 4.)이 아크

	행위인 양면적으로 "민주화투쟁을 위해
	응수기로 한 총학생회의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던"은 교사의 연설은 함으로써 이번
	이런 학생을 멋지게 설득하고 응수기에 처한
	총학생회를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총학생회
	장 심재철은 많은 복학생중에서도 김부겸이
	대해서 가장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총회가 끝난후 "김부겸은
	총학생회를 살려줬다."라고 심재철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
1.	위 기간중 농성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은 모두
	총학생회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며 특히
	식사비는 제가 알기로 약 250만원 정도나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5월 4일 농성이 끝난
	후인 16:00경 학생부장 이영화 조로 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1.	5월 6일 목요일) 4동대형강의실에서
	저는 임시총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원 132명 중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여기에서는 우선 농성비용등으로 학생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으므로 1,000원씩의 추기회비
	를 1인당 징수하여 민주화기금을 조성하자
	는 것이 가결되었고 운영위원회의 독서를
	마무리하여 운영위원 18인, 의장단(총대의
	위원회의장과 단대의장) 16인, 불참생 7인
	이내로 구성되는 민주화투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불참생은 평결권이 없이 과반으로
	참석케 한 것을 인정하였음이다.
	1인당 1,000원씩의 회비는 각 과별로
	거는 중이었고 민주화투쟁위원회(가칭)는
	불참생들의 불참등과 의장들의 지조한
	참석등으로 인하여 경성조차되지 못하였

유이다. 북학생들은 북창이들을 북면
하에 배양하지는 않았고 단지 22식
의 개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이야기를 5월 7일경 동학생회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5월 7일 15:00 ~ 5월 8일 10:00시 사이
에는 사범대. 이문대. 약대의 공동시국성
및 교내시국 청야회를 대회가 있었으며
참가인원은 약 1500명. 주제는 "비상
계엄을 왜 해제되어야 하는가?"였다
고 알고 있으며 저는 참석치 않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2. 5월 8일 15:00 ~ 5월 9일 10:00시 사이
에는 법대. 경영대. 미대의 공동시국성
토론회 및 자유인론 재검토대회가 있었고
이곳을 폭력은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이때

동건호씨와 해장가자들이 참가하였다고 알고 있으며 학생회관에서는 철야토론회가 약 1000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제가 참석치 않아 알수 없습니다.

1. ① 5월 9일 15:00시 ~ 5월 10일 10:00 사이에 광대·음대의 공동 시국성토 및 고대시위. 철야토론회가 있었고 참가인원은 약 1500명 주제는 「비상계엄 해제」와 「정부개혁 반대」 등이었다고 알고 있으며 농성장은 학생회관이었습니다.

② 같은날 17:00부터 분북대에 입소한 1학년생 위원이 있었으므로 총학생회장은 같은날 17:00부터 있을 예정이던 서울시 고대 학생회관에서

내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므로 ^{학생회장 선거} 이 회동과 제가 회기에 참석하
 었습니다. 이 회의는 5.9 17:00~ 5.10
 05:00시 사이에 고대 학생회관 3층 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성대. 서강대. 건대. 동대. 동국대.
 농진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외국어대.
 전북대 등 주로 서울 시내 약 20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이 모였는데 사회는 고려대
 학생회장 신계룡이 맡았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사안이 관한 제2차 ~~1차~~ 공동
 성명서의 초안도 고려대학교에서 작성하
 였고 그 내용도 역시 "비상계엄 해제"
 "정부개혁 중지" "언론자유보장" 등이었습니다.
 이때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총학생회장들이 서울대에서 관히 부채질
 하게 "14일 휴교령이 내려면 15일 2중 3식

	영등포로터리에서 가족시체를 발견했다"고
	5월 2일 신재철이 반포하여 이 말이
	휴교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15일 가족시체를
	발견했다는 것으로 위치되어 천부나오는
	"15일 봉기설"이 나돌게 되었다고 공언했
	습니다. 그러나 휴교령이 내린 경우 그다음
	날 가족시체를 발견하는 신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5월 2일 발표에는 별 이가
	없었고 강남, 강북, 강동지역의 학교를
	끼리 모여 의논한 끝에 반일 휴교령
	이 내리면 강남의 대학은 영등포로터리
	강북은 공덕로터리, 강동은 청량리와
	서울운동장의 곳곳에 유류 3시 집결지로 결의
	되었습니다.
1.	5월 11일 15:00시 ~ 5월 12일 05:00시에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회의실에서 서울대

	주최로 서울대·고대·연대·성대·서강대
	건대·중앙대·외대·충전대·명지대·국민대
	아대·숙대·서울여대·성신여대·대우공전등
	주로 서울 시내 일곱 개 대학 총학생회장
	단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주축학교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u>심재철</u> 은 5원
	원인 고대회의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고대
	총학생회장 신계륜의 사회를 보았고 고대
	이상 참석한 학교에도 발언권은 한 사람이
	만 허용되었음이다. 처음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장 심재철·부회장 김 학진
	총대의원회 의장 류시만, 학생활동위원장과
	이홍동 등 4명이 참석하였으나 발언
	권이 심재철에게만 있었으므로 저능계속
	해서 회기에 참석치는 않고 등관남각하
	에서 자세한 회의의 전개는 알 수 없으

나	이날 회의는 내용상 심재천, 신계준 등이 주도하여 <u>4개항의 결의사항이 채택</u> 되었으므로 알고 있었으며 이 결의문은 5월 12일 오후 12:00시 <u>서북학생회장실에서</u> 가산
들에게 배포되었음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① <u>15일 가두시위를</u> <u>공백부인하고</u> <u>교외시위를</u> <u>자제되어야</u> 한다는 것. ② <u>申 총리와</u> <u>T.V 생방송</u> <u>대담을</u> <u>제기</u> . ③ <u>휴교령을</u> <u>반대하여</u> <u>휴교령이</u> <u>내릴시</u> <u>과감히</u> <u>싸</u> <u>우겠</u> 이라는 것. ④ <u>5. 16. 15:00시</u> <u>이화</u> <u>여지대학교에서</u> <u>전국대학 대표자 회의</u> <u>소집을</u> <u>결의</u> 한다는 것이었음이다.	
1. ① 5월 12일 오후 12:00시경 <u>보통 학생회장실에서</u> <u>제가</u> <u>학생회장</u> <u>이</u> <u>수석교수</u> <u>를</u> <u>만나</u> <u>5월</u> <u>11일</u> <u>15:00시</u> <u>~</u> <u>5월</u> <u>12일</u> <u>05:00</u> <u>에</u> <u>있었던</u> <u>서울</u> <u> 시내</u> <u>총학생회장</u> <u>대회의</u> <u>결과를</u> <u>이야기</u> <u>하</u> <u>고</u>	

15일 가두시위설을 부인하는 학생회장단

회의 경의문을 전달하자 이 수성교수는 본

교무 차관으로 전화를 건후 "문교부에서는

벌써 이 결과를 알고 있는것 같다."고

하여 이제 휴교령 걱정은 없어진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② 5월 12일 (5:00시 ~ 2:30 사이에)

사회대 자연대 가정대의 연합 시국성토

대회와 교내시위가 이로동되는 광장 및

교문에서 있었고 진행은 사회대 학생회장

유승호, 자연대 학생회장 배영주, 가정대

학생회장 김경미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11일 밤 청야회의로

피로해서 그후에는 학생회장 대신에

서 남김을 ~~맡~~ 맡았으므로 자세한 지경상

황은 모르나 주제는 「노동3권보장」 「농민3권보장」

본 회의의 취지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나타. 낮잠을 잔후 10:00부터 총대위원	
회 사무국실에서 *	
사회대대위원회의장	유현호 (사회3)
인문대	" 조병식 (3)
경영대	" 송택호 (경영3)
법대	" 이승만 (법3)
사범대	" 황위기 (자학3)
공대	" 윤치은 (화학3)
지어대	" 신영길 (3)
약대	" 주재하 (제약3)
환경이정대	" 황선유 (3)
의대	" 최병준 (보라3)
등과 함께 총무부장 이 용화권으로부터	
1학기 예산 총 1억 1천만 원 규모) 예산	
편성도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방송시점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저를
 향한다 하여 나가보니 총학생회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운영위원장들이 허점지점
 봉로를 ~~해~~ 빠져나가고 있었고 총학생회장
^{한남대 학생 감병호 (정제4)}
 심재철은 저에게 '계급권이 13일 00:00시
 ~ 03:00시에, 수도권을 정수한다. 그리고
 휴전선 부근에 인장이 있다. 이사실은 방송국
 에서 확인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생회
 과 과총라우지기 농성학생 들처리를 저에게
 맡긴 후, 향당의 봉로를 빠져나갔음이다.
 저는 이 소식을 총대위원회 사무국실의
 단과대학 의장들에게 전하고 의장단회의
 를 해산시킨후 2:10경 학생회관 과총
 라우지로 건너가 농성중이던 약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각 라별로

모아 2:30 경에는 거의 해산시켰
우시다. 그대 저와 함께 학생들을 해
산시킨 윤영기원은 자연대 학생회장 배
영유가 있었습니다.

105월 13일 11:00 ~ 13:30 사이 교문앞에서는
분류대를 회소하는 1학년 회소화영식이 개최
되었는데 약 4000여명이 학생이 잠편하
였는데 연사들은 하나같이 12일 밤
계엄조이 오는 소문을 듣고 확인으로 제대
로 압음치기 되었다. 학생회장부의 비점하음
비난했으며 다시한번 총학생회는 공지
에 불리게 되었음이다. 이 때 연설을 한
하는 김부겸이 다시 등장하여 "학생회가
잘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 총학생회의 잘못이 아니라, 불학생들이

그의 동박을 잘못 국에서 그랬다" 말하여
 총학생회를 다시 한번 구제해주었으며 그의
 말로 비추어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김부
 겸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
 됩니다. 그러나 독박한 총학생회의 인기
 와 권위는 다시 세울 수가 없었으므로 총
 학생회장 심재철은 "15일 학생총회에서 가두
 진출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발표하였음이다.

#. ①01일 22:00부터 근대 학생회관에서
 근대가 주체가 되고 역시 근대 총학생회장
 신재철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서울대. 근대.
 연대. 성대. 서강대. 건대. 중앙대. 위대
 동원대. 명지대. 국민대. 한양대. 아대. 숙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아대. 홍익대. 서울신대
 등 17개 신학대학을 해마다 약 25개 대학
 대학총학생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음

이다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장실에서
 18:00부터 가두시위 선행여부를 놓고 운영위
 위원회가 열렸고 제가 그대에 가지위해
 21:30경 학교를 나갈때 분위기는 가두시위
 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며 총학생회장 심재철
 처리처임자가 남아서 우리 학교 거둬를 모든
 밤에 점장하였다는데서 저 혼자 그대
 가라고 부탁하였는데다. 그래서 저 혼자
 22:30경 그대이 도착해보니 이미 회
 가 시작되어 있었고 제일 먼저 연대 대
 동(총학생회장 박광호가 아니었다)가
 (3인 연대의 신촌 및 광화문 가두시위 상황
 보고를 하면서 "연대가 제일 먼저 심사가
 를 지냈고 우리는 주먹대까지 싸웠더니
 다대항로 이제 같은 가두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대 총학생회장

신계들은 "이비 내일(14일) 11:00시

간대로 가두시위를 결정해 놓았다"는 이야기

했으며 여대·중앙대·명지대 등 다수의

학교들이 언제든지 가두로 나올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세가 그쪽으로 가우자 저는

학교를 떠날때 총학생회장 십재철이

"아무래도 가두로 나가야 할것 같으니 가보

고 대세가 기운대로 결정하고 오너나."고

지침한대로 "화대학이 모두 나가다면

우리는 15일날 가두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14일은 입학대생들이 문목대출연의 피로를

썼느라 학교를 나오지 않으니 때로이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 15일에는 가두시위를

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뒤늦게 숙명

여대 총학생회장 형 난옥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이견을 내놓았으나 연대쪽의

	가동한 반박과 이미 가동어진 대세때론
	이 역시 가동시위를 하기로 하였음이다.
	이 회의는 14일 05:00시에 끝났음이다.
1.	05월 14일 07:00경 학교를 돌아와보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총학생회장단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음
	이다. 그래서 저는
	총학생회장 심 재철 (사대 영어과 4)
	부회장 김 학진 (공대 조선공학 3)
	이문대학생회장 노창준 (중앙사 3)
	사라대 " 유승호 (경제 3)
	경영대 " 정철상 (경영 3)
	공대 " 양점식 (3)
	자연대 " 이세영주 (3)
	등이 있는데서 회의 결정을 보고하자
	운영위원들은 하나같이 "오늘 (14) 나가면

휴교령이 내린데다 내일(15일)까지
 미루수 없대며 총학생회장 심재철을 중심
 으로 교부동파계획을 짰고 저는 약 10:30
 까지 눈을 붙였습니다. (총학생회장실소파에서)
 ②. 11:00시경부터 단국대학 학생회장의
 지휘아래 단대별로 마크로 통거스에 집결한
 인원은 7000명 정도였으며 그중 문대·미대
 는 낙성대쪽 후문, 공대·법대는 국가대학
 등이 학교를 나가 병선동4개, 신림동4개
 에서 12:00경부터 집결시위하러들 되어있었
 고 가정대 여학생들은 공대광사장쪽에서
 돌을 주어 날렸읍니다. 저는 이 학생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13일밤 교대화기 결과를
 보고하웠고 대다수 학생들이 바투를 쳤고
 총학생회장인 심재철은 간단한 가두
 시위 선언을 하였습니다. 심재철의

나라에 시작하였고 약 4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막대한 흥행이와 페퍼콜라가 9간후 약 12시
 30분경 경찰이 제지선을 통하여 주위에
 부상자가 속출하자 (나중에 들기로 약 30명
 의 경찰이 부상당하였다고 함) 교문에서의 제지
 선을 하느라 없이 끊어준것으로 생각됩니다.
 그후 신림 4거리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으며
 병자향을 방지 하였으며 휴식시간을 가지거나
 대방역을 거쳐 14:30경에는 영등포
 시장앞에 서울대 앞만 5000여명. 영등포
 역앞에 중앙대. 숭실대들과 서울대 앞
 약 3000여명이 집결하여 있었습니다.
 교문을 출발한후 외친구호는 "비상계엄 해제"
 "신화화. 저두화 화지." "정부개헌 반대." "언
 론자유보장." "농민권익 보호." "시민생활 보호."
 "노동권보장" 등 5원 2인 총학생회 운

영리위원회에서 각 단대별로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하나씩 나누어 주며 구호인물
"정미" "흥들리지 않게" "최복" 등의
노래를 불렀다.

③ 14:40경 학생 약 500여명이 영등포
시장앞 도로에서 위와 동일한 구호 노래를
외치며 연파하고 있을 때 학교 마이크를
바스를 타고 부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회
대학장의 이현재 교수, 인문대학장 박석홍
교수 등 약 10명의 학처장들이 나타났다
약 40분간 연파하는 동안 총학생회장 이
수성교수는 "교수들이 앞장설테니까 더 이상
나가지 말고 평화적으로 귀교하자"고 총학
생회장 심재철군에게 말씀하셨는데 학생
들 사이에 "평화분으로라는 말이 퍼져 있어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학교로 돌아가는다고

	메이포트로 이야기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고
	학생들은 움츠러 하지 않았음이다.
	2대서 - 심재천 학생회장은 애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광화문으로 가득차기할 것을 결정
	반동하였음이다. 저는 상대가 약해 영등
	포까지 어느동안 목이 다 쉬어버렸으므로
	학생들을 가 자위할 생각을 포기하고 학생들
	들끼리 섞여있었던 영등포를 더는 그리는
	교수님들은 다시 보적이지 않았음이다.
	④ 15:30경 영등포를 출발한 서울대생은
	반씩 나누어 한때는 여의도 동라 마로를
	지나 서울역으로 가득행진해갔고 내려지 1차는
	제2한강교 신촌로다리를 거쳐 광화문으로
	가려다 경찰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일단
	종로방에서 출발했다가 약 250여명이 마로
	를 따라 서울역으로 행진하였음이다. 이때

부인은 학생회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
 고 19:00시 ~ 22:00시 사이 학생들은
 서울대. 건대. 중앙대. 이대. 성대. 동국대 등이
 마구 섞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향
 지지선은 시청-광화문 사이만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시청앞광장 ~ 서울역광장. 을지로
 등을 무통제 상태로 "비상계엄해제"
 "저독한. 신변확보" 등을 외치며 기습시위
 하였음이다. 이때 저는 학생들 틈에 섞여
 있었는데 21:30이 가까와오자 초조해졌고
 학생들을 해산시킨다는 걱정되었음이다.
 또 경찰은 마구 공격한 태세를 취하며
 테이프를 불기 시작했음이다. 제가 연필
 보니 경찰은 지지선에 서서 지키시는 분이
 평소 서울대 정문에 있던 분 (재임은 홍정)
 이어서 저가 손을 흔들며 달려가서 인

	사를 드리고 22:00 까지 해산시킨다.
	그동안은 피피모를 사지 않아달라고 부탁드리
	자 응당해 주셨유해다. 그래서 22:00경
	학생들을 (숫자는 알수 없음) 시청앞 명장
	파라자 호텔쪽에 잠정시키뒤 해국가와
	만세시위를 하고 정황이 22:05에 완전
	히 해산시킨 일이 있었유해다.
1	① 5.15. 12:00 이크로동기스에서
	약 5000명의 학생이 모이게되어 학생총회
	가 열렸유해다. 이 총회는 심재철이 14인
	11시30분경 휴교령이 내려지 않음과 15인
	12:00에 학생총회를 이크로동기스에서 대
	열렸다고 밝힌데 따라 개체된 것임이다.
	여기서 저는 사표를 보았는데 강정훈과
	모기호의 대립하여 서로양해를 기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중립을 지켰유해다.

박정우가 패배하듯 1박선 상태에서 총학생
 회장 심재철, 문희창, 김학진이 상의하여
 16:00 서울역광장이 집결하는데 이르나
 제 의견을 물어보았고 저는 좋다고 대답
 했으며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약 14:00
 경 "오후 4시 서울역 집결"을 발표하고
 학생총회를 마쳤습니다.

이때 체육부 부장 박영기 (체육 3),
 문예부장 김형철 (공대 전산 3) 등은
 학생처장 이수성교수의 허락을 얻어
 승용차를 타려하고 그것을 확인하러 학
 생처장실이 올라가서 이수성교수를 만났는
 데 그것이 약 15:40 정도 되었을 때였고
 이수성교수가 늦었으니 내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해서 문예기사, 처장, 심재철과
 제가 함께 학생회 승용차를 타고 서울역으

로 갔는데 서울대남들이 어디있는데
누가 없어 제가 학생회장 이수성과
"불온이 올라가서 찾아뵙시다" 라고 반쯤
니까 이수성과가 심재철과 저를 데
리고 대우빌딩 2층의 어떤 사무실로 들
어갔고 그곳에서 저희학교 학생들이 여광장
에 있음을 발견한 심재철과 저는 학생
회장님과 헤어져 여광장으로 내려왔는데

② 서울여광장에 집결한 약 40여명의
서울대남들 이때부터 2:00시 하산때
까지 계속 여광장에서 "최상계급라떼"
"전환불러가라" "신현환불러가라" 등의 구호
를 외치고 정이파, 흥흥이치 '흥' 등의 노래
를 부르며 연례만 하다가. 20:30경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서울여에 집결한
각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경정한 사람

은 발표한다면서 이의가 있더라도 따라
 주것을 대항한 후 각 학교별로 기록하거나
 해산한다고 발표하였음이다. 총학생회장
 등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며 이의 심재철은 "다음단계의
 행동은 9월 15일 (15일) 22:00시) 근대
 에서 총학생회장단 회의를 열어 결정하
 겠다고 발표하였음이다. 학생들이기 발
 한때 발판으로 이용된것은 서울대학교의
마이크로비스였으며 이 마이크로비스에 학생
 가재를 싣고 갔었음이다.

③ 이 발표에 따라 서울대 운동 약 2000
 여명은 21:00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평양한 구역을 외치면서 용산. 노량진. 강남
 백을 경유 야간 가두시위를 벌였고 24:00
 시가 다되어서야 봉천동 구역을 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총장님의 자시인지
 학생처장님의 자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상
 지역 못미처 약 5대의 승합버스가 대기하
 고 있어 여학생 일부와 남교사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고 준비되어 있던
라면과 우유를 먹고 각자 사무실 휴게
실에서 취침한 후 다음날 아침 모두 3기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의 광
 의는 낮에는 약 5만기 학생 5만기 시민이
 모여있어 농성대에 걸잡지만 밤이 되면 좁고
 배고픈 시민들까지 다 3기하버리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에서 일단 해산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 이날 밤에 (22:00) 근대에서 열린 총학생
 회장단 회의에서는 심재천 혼자 참석하였으
 므로 상이한 결과는 알지 못하며 별로

	중요한 경정사항없이 16일 15:00부터
	생각대에서 열린 전국대학대표자회의로 이리
	것이 이사가 생각합니다.
1.	5월 16일.
	①. 12:00경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회장
	동위원장 이홍동이 저에게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가 사표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가변하고 하였읍니다. 이야기 인즉 15일
	밤 서도악에서 학생들이 해산할때 이수성
	교수가 내무부장관님과 협의해서 학생들을
	해산시키려 했었는데 15일 밤 이수성교수가
	학생들에게 평화적으로 해산하라고 했을때
	"학생처장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불신감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또 실제로
	고대 학생들이 귀교도중 경찰과 충돌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이 사건의 이유였음이다. 제가 처장
실에 올라갔을때 처장님은 총장실에 계셨
으므로 저는 총장비서실에서 약 5분간
기다려나 처장님과 함께 학생처장실로
동아랐음이다. 그러는 정작 사건에 대해
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16일은 가두
시위를 안해로 된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같이 교장식당에서 점심으로 육개장을
먹은후 복록양에서 헤어졌고 이때 학
생처장 이수성교수는 "자꾸 강경파에게
반대지 말고 소신껏 학생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활동하라"고 말씀하셨음이다. 이후
저는 이수성교수를 만났 적이 없음이다.

② 13:00시 ~ 15:00시 과세 나르르동계스
광장에서는 가두진중봉제를 놓고 당시 학생총회
가 열렸으나 이튿날 피리가 잡혀 가두진중

하러 가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므로
사회복지행사를 맡아본 총학생회장 심재철
및 운영위원들이 주강대로 당분간 가족사
없이 유인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
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할 것이 결의되었습
니다. 저는 이 화일이 참석하지 않고 학생
식당에서 쉬고 있다가 ~~16:00~~ 16:00시경 인적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② 5.16. 15:00 ~ 5.17. 사이에 이화
여대에서 영과 전국대학 대표자 회의에
는 심재철과 이홍동이 참가하였고 저는
그 후 위 두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었으므로 회의의 경과나 흐름 내용, 절차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뉴스에 59개 대학 900여명 참석이
는 사실이 보도되었기에 알고 있을 뿐입니다

1. 5월 17일

①. 16:00경 김철근(북학생. 경제리 4)이
저를 찾아와 총대위원장실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대세가
우리한테 유리하다, 아내에서 영리는 총학
생회장단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겠지만 이 대세를 몰아 19일과 20일로
가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저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 경자한
일도 아니고 총학생회장이 동의하면 이야
기 해 보겠습니다." 라고는 대답하였습
니다.

②. 11:00시 ~ 12:00. 사이에

16일 학생총회에서 유인물로 홍보활동을 하려
했으므로 도서관과 IMC (교육마체 저장소)

의 인쇄기 사용을 허락받으러 교육차장님

1. 학생치장님을 각각 교육치장실 학생
 치장실에서 만나 부탁드렸는데, 교육치장
 실은 I.M.C관이 교육치소관이 원칙적으
 로 교육마체를 제작하는데만 사용되지 되
 어있으므로 제작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수
 성 치장실장은 학생치소관이 도서관 인쇄
 기에 대해서만 도서관장으로 공문을 발송
 하여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이다.
 그러나 실제로 12:50경 도서관에는 직원들
 이 (도원이나) 다 퇴근한 뒤여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동학생회 부회장의 전화권이 16:00
 경 장영님을 공관에서 찾아보고 제작을 맡아
 I.M.C관기 바스터 인쇄기는 약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음이다. 여기서 어떤
 유인물을 인쇄하였는지는 지르는 작 모르며
 동학생 이종국 황광우등이 거기에 관여

	하였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② 원대 5.16.15:00 부터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대학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중 학생
	회장 신재철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이 돌아와서 5월 17일 16:00 부터 동학
	생회장실에서 양으로의 방향수업을 위하여
	유영기회와 영진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회의는 하지 못하고
	총학생회 부회장 김.항진 (조선공학3)
	인문대 학생회장 노창준 (동양사3)
	경영대 " 김철상 (경영3)
	법대 " 이철수 (법3)
	사범대 " 진영호 (교육3)
	공대 학생회장 양정식
	초연 학생회장 이재인 (교육3)
	사범대 학생회장 김경미 (의대3)

문예부장 권혁진 (공대 2학년 3)

등과 같이 모여 장담을 나누고 있었고

이대에서는 무슨회의를 24시간 넘게 하느냐

면서 휴면하고 있었는데 18시 25분경

이대쪽에서 익명의 학생(서울대 4)의 부탁

총학생회장단 전격소식이 들어왔는데 말을

누가 없어서 조선일보 한국인보등에 장행보

신에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병파는 소식을

알지 못하였고 그 병의 총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이수생 학생처장님은 총리직이어서 "총리 연락

2번 학교로 전화극시라고 전해달라"고 대개

10월 20일 후에 19:10 정도에 학생활동이

원장 이홍동으로 부터 전화가 있었는데 본인

이 밝히는 않았으며 누가 받았는지는 기억

이 나질 않음에 내용은 "아대에서도 학생처

내렸는데 심재천의 전격여부는 알수 없다"

치 안 본 부 3/10

는 것이었고 19:30경 이화여대의 표학생
 두명이 도서관에서 목격했다면서 학생회장
 신에 찾아와서 짐거소사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비슷한 시간에 총학생회장 ~~이~~ 부터 무사히
빠져나와 노랑집에 있다는 전화가 왔
니다. 저는 19:10경 이 홍동의 전화를
 받고 나서 사실임을 확실하고 학생회관 각
 방을 다니면서 전달해서 짐해방식이 있던
 학생들을 3가도록 했고 학생활동위원회
 신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보통생 이해찬
이범영 김병근, 여성만, 심상만이 3명정
로 도합 8~9명이 있었는데 저는 소사를
 전해주고 다시 총학생회장으로 돌아와서
 약 20:30~21:00시 경 학생활동위원회
~~로 건너가~~ 학생에서 있던 보통생들이
총학생회장 신에 들어가서 "사태가 매우

중박한것 같은 대연한 처 말로 바알니
 피하자." 그 말하느는 자기들버저 학생회
 관에서 빠져나갔읍니다.
 그리고 나서 21:00시~22:00 사이 대부분의
 운영위원 들이 빠져나갔고 20:10경 제가
 학생처장 이수성교수의 전화를 받았을때
 운영위원중 경영대 학생회장 정철상준과
 공대 부회장 안봉수 ~~부회~~가 남아있었다
 "비상제엄의 전국학대의 법적인미를 학생들은
 잘 모를테지만 어쨌든 바알니 피해서 나가나."
 "전화거는 곳은 문교부차관실이다" 는 내용의
 전화를 학생처장 이수성교수로부터 받은
 후 이 두사람마저 빠져나가고 저와
 체육부 차관 문희준 (체육 2), 보통생이
홍익, 이항익의 여동생등 4명이 총학생회장
 생이 남아있다가 23:40경 경찰에 연행

되었습니다.

1. 유인물은 남자별로 배영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따로

진술하겠습니다.

① 저희 학교내의 등사시설은 총학생회와

수강생문지기 1대, 등사기 2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편집실이 최소한

1개의 등사기가 있고

각 라마다 라에서 나오는 유인물이 학생

들의 주의를 받이기 위하여 복사기 및 등사기

수강생문지기 혹은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IMC의 인쇄기는 여타의

학생활동에 쓰이는 이번의 IMC인쇄기

이용이 처음입니다.

이번 14일·15일 가두시위를 전후하여

배달된 유인물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사실을 과장한다."

"북괴의 위기는 무엇인가" "계엄하의 언론통제"

등 6~7종이 되나 2종 제가 알고있는

것은 이흥국 (북학생, 법.4) 황광우 (북학

생, 경제과) 학생회장등 위키상 이흥동 (법치4)

사회부장 허남정 (철학3) 등이 유인물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번이 나온 유인물 중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 박문식 (경제4)

군에 의해 초안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유인물 인쇄 및 배포는 총대기회 회경원외에

는 저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더 상세히 이송하는

없음이다.

1. 위진동의 사실과 증거 없음을 확인한다

1980. 6. 12

자숙인 柳 時 敏

치 안 본 3/13